

2020.05

봄

제24호

날으는 홍범도장군

www.hongbumdo.com | 발행인 우원식 | 편집인 홍순계 | 창간 2014년 6월 1일



**“독립전쟁 전승 100년
홍범도 장군 고국으로 돌아오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Gen. HongBumDo Memorial Society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TEL : 02)734-8851~2 FAX: 02)722-0251 www.hongbumdo.com





2020.05 봄 특집호

2	유해봉환	홍범도 장군 묘역 관리 역사
3		독립전쟁 100주년, 함께 만들어 낸 희망의 승리! 새로운 100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원식 이사장
4		유해봉환 성사 과정
6	특집	오천만 겨레의 가슴마다 당신들의 기념관을 세우고 싶습니다 - 독립 영웅 다섯 분의 기념관을 찾아보고 - 정이숙 카피라이터
14	칼럼	독립전쟁 원년 선포 10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을 다시 생각한다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15		독립전쟁 기념일을 제정하자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
16		홍범도 장군은 이북실향민들의 정신적 지주 수도권에 장군의 추모공원을 조성, 남북 통합의 지표로 삼자 염승화 이북도민화중앙연합회장
17		날으는 홍범도 장군의 추모공원과 기념관을 조성해야 합니다 홍성중 남양홍씨 대종회장
18		높고 빛나며 뜨겁고 외로운 송은일 소설 홍범도 작가
20		1920년 독립전쟁의 첫 승리, 봉오동전투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22		항일전쟁 100주년, 홍범도 장군께서 보내신 편지 함세웅 신부
24		고려인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은 고려인에게 민족적 유대감과 역사의식을 다지는 계기 노 알렉산드르 대한고려인협회장
25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마주할 홍범도 기념공원 조성을 제안한다 한동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26		‘2020년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27		새 이사진 인터뷰
28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최비 입금현황, 임원명단

독립전쟁 100주년, 함께 만들어 낸 희망의 승리! 새로운 100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원식 이사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백 년 전인 1920년은 독립전쟁의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독립신문>1면에 독립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밝혔습니다. 3·1운동으로 자각한 청년들은 독립군에 투신했고, 만주와 간도 곳곳에 터 잡은 독립군 부대들이 바로 독립전쟁의 주역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전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1920년에만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무려 1,651회나 펼쳐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또한 독립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쳤으며, 다른 독립군단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국내 진공작전을 꾸준히 전개했습니다. 독립전쟁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오른 그 해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는 일본군을 상대로 독립전쟁 최초 전면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독립전쟁 1차 대승리'라고 불리는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0월의 청산리 전투에서 또 다시 일본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1920년 독립전쟁에서 이뤄낸 승리는 독립운동의 역사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로 고통받던 민족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만주지역 독립군의 저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후 만주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만주 독립군의 청년들은 1940년 한국광복군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는 단순히 개별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거쳐 진행되어오던 연속된 투쟁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독립전쟁의 승리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희망의 승리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역사는 평범함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한 때 머슴으로, 나팔수와 식객승을 전전했던 평민 출신 의병장이자, 의병장 출신 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는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독립운동은 이렇게 우리 주변의 평범함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평범함 속 용기들이 하나, 둘 모여 위대한 희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희망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바로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억압에 맞서 승리한 독립전쟁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듯,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19의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가 가고 독립전쟁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독립전쟁 100주년을 새롭게 정립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공유하고 기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독립전쟁 1화전'이라고 불리는 봉오동전투, 그리고 청산리전투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함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들의 삶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독립전쟁 100주년을 한 번의 기념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 드디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추후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함께 봉환하여 안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념사업회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사회 그리고 우리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맡아 원활하게 유해가 봉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유해 봉환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100년 전 함께 만들어 낸 독립전쟁의 희망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작은 밑알이 되어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2020.5 이사장

우원식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
드디어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홍범도 장군 묘역 관리 역사

1943

10월 25일 75세로 서거
집 근처 임시 분묘 (독·소 전쟁 중)

1945

2차 대전 종결 후 중앙공동묘지로 이장
홍범도 거리 명명 : 크즐오르다 스테파나야, 프롤레타리아 거리 부근)

1951

1951년 서거 8주년 묘지 정비
'홍범도장군 분묘수리위원회' 조직
- 레닌기치 남해룡 주필, 부주필 염사일, 박성태·심상원 등 전우들 친우 전경팔, 향일투사 이인섭, 레닌기치 이인 등
- 2,000여 루블 성금/ 분묘, 철장 정비 후 반신 조각상, 철비 세움

○ 철비 기록

전면 저명한 조선 빨치산 대장 홍범도 묘
1868년 8월 27일 출생, 1943년 10월 25일 사망
후면 조선의 자유독립을 위하여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한 투쟁에 헌신한 조선 빨치산 대장 홍범도의 일흔은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전하여지리라
1951년 10월 25일 레닌기치 신문사 동인, 고인의 전우 및 시내 유지한 조선인 일동 건립

1981

4월 25일 현재의 중앙묘지로 이장
전 레닌기치신문사 부주필 김국천 발기하여 외진 곳에서 현재의 중앙묘지로 이장

1983

서거 40주년, 추모비 건립
김국천을 회장으로 '홍범도 장군 추모비 건립추진회' 추모비 건립
- 반신 청동상과 추모비가 중앙묘지의 제일 앞면에 서게 되어 고려인들에게 큰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됨

○ 반신 청동상 받침대의 기념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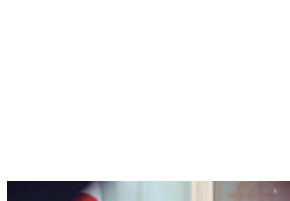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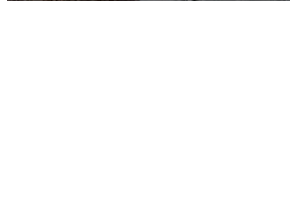
빠르치산부대의 전설적인 지도자이며 원동에서의 쏘베트정권을 위한 열렬한 투사 홍범도(1868~1943)

1996

5월 20일 기념비 건립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기금으로 홍상 주변에 3개의 기념비 건립
① 1937년 강제이주
② 1995년 광복 50주년
③ 1997년 강제이주 60주년

2019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요청



유해봉환 성사 과정



1992

국교성립 직후

○ 1992년 카자흐스탄과 국교

- 1994년 9월 30일 크즐오르다시 박물관 ‘홍범도 폰드’ 비상회의
- 홍범도 장군의 유해이전문제 토의
(서울, 평양 어느 쪽도 아닌 크즐오르다에 두기로 결정)
- 카자흐스탄 동포 사회에서 장군이 정신적 구심점 구실을 하고 있고 고려인들은 크즐오르다에 장군의 묘역을 조성하고 장군을 민족 지도자로 기린다는 점
- 카자흐스탄 정부 역시 ‘홍범도 장군 거리’를 선포할 정도로 장군을 존중

○ 1994년 홍범도추모비 건립 10주년 서거 51주기
한국 김창근 대사 참여

○ 1995년 1월 21일자 ‘홍범도 폰드’ 회장 김레프 기고
“영웅의 유해는 그를 실지로 민족의 영웅으로 받들어 주고 있는 조국에 있어야 한다... 만약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정착지가 서울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 것”

○ 1995년 서거 52주기 추도회 김창근 대사 참여

2019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

○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협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22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크즐오르다에서 서거한 홍범도 장군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최고로 추앙받는 인물”이라며 “총사령관으로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내년이면 100년이 된다. 또한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다. 그래서 한국 국민은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에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뜨겁다”고 말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역사적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그 점 존중한다. 외교·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이슈를 협의할 수 있도록 외교장관에게 지시했다”며 “양국 관계와 국민 간 교류 등을 감안해 이 문제가 내년 행사 때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 문재인 대통령 계봉우, 황운정 지사 내외 유해봉환행사 주관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국외 현지(카자흐스탄)에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 두 지사와 배우자의 유해가 국내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문재인 대통령 추모사

“계봉우 지사님과 배우자 김야간 님, 황운정 지사님과 배우자 장해금 님을 이제야 모시러 왔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이제 네 분을 조국, 고향산천으로 모신다”.

2020.03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축사에서 발표

1920년 1월 13일,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은 대한독립군 홍범도 의용대장의 권고문을 실어 무장투쟁의 정당성과 국토회복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1월 30일에는 서간도 신흥무관학교에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 될 76명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중략)
자각한 국민들의 자강 노력이 이어지면서 1920년에만 무장항일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무려 1,651회나 펼쳐졌습니다. 그해 6월, 우리 독립군은 일본군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로 전면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홍범도 장군이 이끈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이를 ‘독립전쟁 1차 대승리’라 불렀습니다.

(중략)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3·1독립운동이 만들어낸 희망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 저는 온 국민이 기뻐할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평민 출신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계봉우·황운정 지사 내외분의 유해를 모신 데 이어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하여 안장할 것입니다.
협조해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와 크즐오르다 주 정부 관계자들, 장군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고 묘역을 보살펴오신 고려인 동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립운동가 한분 한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갈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나갈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이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가치를 일깨우고, 선열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05

코로나19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도 미뤄졌다.
청와대는 3월8일 “양국 간 논의되어 오던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이 코로나19 관련 상황으로 연기됐다”며 “양측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연내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이달 말로 예정됐던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 시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함께 봉환하는 것으로 카자흐스탄과 협의했지만, 방한 연기로 이 역시 늦춰지게 됐다. 📺



오천만 겨레의 가슴마다 당신들의 기념관을 세우고 싶습니다

- 독립 영웅 다섯 분의 기념관을 찾아보고 -

정이숙 카피라이터

프롤로그

다섯 명 청년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들은 잘 생겼고, 열심히 공부했고, 자기 자신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했다. 그들은 태극 마크를 단 국적이 한 대 없던 시절에 중국으로 러시아로 미국과 호주 등 낯선 세상으로 용감하게 나갔고, 생각한 바를 실천에 옮겼다. 그들은 뜨거웠고 곳곳했고 가난했고 외로웠다. 죽음조차 편안할 수 없어서 암살 당했거나 사형 당했거나 감옥살이 끝에 죽었다.

김구! 안창호!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한 때 청년이었던, 우리의 독립 열사 다섯 분의 이름을 뜨거운 심정으로 불러 본다.

탄생 년도를 찾아보니 김구, 안창호, 안중근 세 분은 두세 살 터울의 동년배들이다. 독립된 조국에서 태어나 서로 만날 수 있었다면, 청춘의 고민인 연애나 취업 문제를 이야기하며 술잔을 기울였을지도 모르겠다. 김좌진 장군은 앞의 세 분보다 10년쯤 아래이고 윤봉길 의사는 20년 아래 연배이다. 일제강점기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에서라면 뒤의 두 분은 앞의 세 분을 같은 회사의 선배나 상사로 만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해본다. 그랬다면 얼마나 즐거웠을까? 부장이나 임원인 김구, 안창호, 안중근 세 분이 과장인 김좌진 장군과 신입사원 윤봉길 의사를 데리고 회식을 한다면? 일제의 밀정이 미행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고문 당할 염려도 없이, 다섯 사람이 환하게 웃고 유쾌하게 우리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떠올리니 콧날이 시큰해진다.

일제와 싸워 크게 이겼던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와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아 독립 영웅 다섯 분의 기념관을 찾아 보았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백범일지〉에 수록된 ‘나의 소원’ 중에서

- 백범김구기념관 -

백범기념관은 2002년 용산 효창공원 안에 세워졌다. 당시 신문기사를 찾아 보니 10월 22일 오후 3시에 열린 개관식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백범정신실천거레연합 신창균 수석대표,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백발이 성성한 독립유공자 100여 명도 자리를 함께 해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백범의 생전을 회고했다고 한다.



백범김구기념관 설립일: 2002년 10월 22일 | 위치: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효창공원 내) | 규모: (대지)18,355㎡(5,552평) 국/시유지 (건물)9,683㎡(2,929평) 컨벤션 기능 제외 전시공간 1,742㎡ | 주요소장품: 백범 좌상, 동학 및 의병활동, 구국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자주통일운동 관련 자료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동절기 5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날추석, 기타 관장이 정하는 날

연면적 2,929평 지상2층, 지하1층의 건물로 세워진 기념관에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일흔 셋의 나이에 안두희의 흉탄에 쓰러지기까지 백범의 전 생애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각종 사진 자료와 유품, 친필 서한, 전신상, 그림 등이 전시됐고, 컨벤션홀과 대소회의실도 설치됐다. 건물 2층에는 젊은 세대를 위한 ‘사이버 백범기념관’도 있다.

신문은 또 ‘전시장에는 백범이 관여했던 치하포 의거와 동학 및 의병활동 모습, 한인애국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의 모습 등이 각종 사진과 모형물로 재현됐고,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비디오도 상영되고 있다. 미리 예약하면 백범 및 한국 근현대사 관련 전자자료실과 웹을 통한 자료검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구(1876.8.29~1949.6.26) 선생은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했다. 15세 때 한학을 배웠고, 1893년 동학에 입교하여 해주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군에게 쫓겨 1895년 만주로 피신하여 김이언의 의병단에 가입하였다.

1896년 을미사해의 복수로 일본인 쓰치다를 처단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고종의 특사로 집행이 중지됐다. 3·1운동 후에는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했고, 1928년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여 총재가 되었다. 결사단체인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고, 1932년 일본왕 사쿠라다몬 저격사건,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일본 왕 생일축하식장 폭탄투척사건 등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휘하였다.

8·15광복으로 귀국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 성명을 반박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국제연합의 결의에 반대하여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제창하였다. 정부수립에 참가하지 않고 중간파의 거두로 있다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 국민장으로 효창 공원에 안장되었으며, 저서로는 《백범일지》가 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김구 선생의 일생을 검색하여 읽으며 백범기념관으로 가는 지하철에 올랐다. 지하철 6호선 효창 공원 역 1번 출구로 나가 10여 분을 걸으면 백범기념관 입구가 나온다. 그런데 아뿔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기념관의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온라인으로 찾아본 내부의 모습으로 아쉬움을 달래며 선열묘역이 있는 효창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16만924㎡(4만8천680평) 규모의 효창 공원은 원래 조선 22대 왕 정조의 장자 문효세자의 묘역 ‘효창원’이 있던 자리다. 일제는 이곳에 골프장과 유원지를 지어 식민지 공원으로 만들고 해방 직전엔 묘역을 고양시 서삼릉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효창원은 규모가 3분의 1로 줄고 도로로 단절됐다. 가슴을 칠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치욕스러운 역사다.

해방 이후 김구 선생은 효창원에 독립운동가 묘역을 조성하고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삼의사’와 임시정부 주석, 비서장, 군무부장을 지낸 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선생을 모셨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으면 안장할 가묘도 만들었다. 그리고 흉탄에 쓰러진 후 김구 선생 자신도 효창원 서북쪽 언덕에 묻혔다.

효창 공원에는 가벼운 산책을 즐기러 나온 동네 주민들이 많았다. 마스크를 쓰고 걷다가 간이매점에서 얼음과자나 음료수를 사서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마시는 모습이 평화롭게 보였다. 독립한 조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후손을 지켜보는 선열들의 마음이 지하에서도 흐뭇하시리라 생각하며 나도 그 틈에 스며들었다.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이외다”

도산 선생이 1921년 동지들에게 보낸 공개서한 「힘을 기르소서」의 한 대목(『안도산전서』 1016쪽)

- 도산안창호기념관 -

한가로운 수요일 늦은 오후 도산 안창호(1878.11.9~1938.3.10) 기념관이 있는 도산 공원을 찾았다. ‘도산 공원 사거리 근처 어디’라고 흔하게 지명을 말하기는 했지만 도산 공원 안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땅값 비싸다는 강남 한복판에 초록이 무성한 공원이 있고 독립지사의 기념관과 묘역까지 있다는 사실이 신선하고 반가웠다.

도산기념관은 1998년 11월 9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당시 국무총리이던 김종필 전 총리가 축사를 했고 미국에 살고 있던 도산의 장녀 안수산 씨가 일부러 귀국해서 참석했다. 김재순 전국회의장, 이영덕 전국무총리, 안춘생 당시 광복회장, 이강훈 전 광복회장, 서영훈 당시 도산기념사업회 부회장, 김태길 서울대 명예교수 등 500여 명이 개관식에 참여했다고 그 날의 신문은 전하고 있다.

안창호 선생은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했다. 한학을 배우다가 서당 선배로부터 신식 학문에 눈을 떴다고 한다. 조국의 앞날을 염려하던 중 청일전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고 1895년 상경, 구세학당에 들어가 그리스도교도가 되었다. 1897년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1899년 고향 강서에 한국 최초의 남녀공학인 점진학교를 세우는 한편 황무지 개척사



도산안창호기념관 설립일: 1998년 11월 9일 | 위치: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5길 20(도산공원 내) | 규모: (대지)29,816㎡, 국유지 (건물)1,069㎡ / 지상 1층, 지하 2층 | 용도: (지상 1층) 도산홀 전시관, 영상실, 사무국 (지하 1층) 대성홀, 도산학회, 회의실 (지하 2층) 점진홀, 강당, 수장고 | 주요 소장품: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에서 찍은 사진, 각반, 상아 인장과 인장집, 주머니칼, 담뱃갑, 담뱃대, 재떨이, 유묵 3점 등의 유품 71점과 신체호가 도산에게 보낸 서한 등 19점, 흡사단 등에서 활동할 때 작성한 문서 48점, 임시정부 서류집, 도산일기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도산 어록과 연보사진 등을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도 설치되어 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설립일: 1970년 10월 26일 |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1 (남대문로5가 471) | 규모: 대지 5,772㎡ 연면적 3,759㎡(약 1,200평)에 지상 2층 지하 2층 전시실 12개, 강당(192석), 자료실, 휴게실 등 | 주요소장품: 안중근 의사 유묵 및 자서전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동절기 5시) |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 날 휴관) 1월 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삼천리 금수강산에 왜놈이 웬말인가 단장의 아픈 마음 쓰러버릴 길 없구나”

김좌진 장군이 지은 시 단장지통(斷腸之痛) 중에서

- 김좌진장군생가 백야기념관 -

홍성까지 내려가지는 못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설명한 김좌진 장군 생가터와 기념관에 대한 설명을 찾아 읽어 본다. 서산 간월도와 안면도로 가는 홍성나들목으로 나가면 왼쪽으로 김좌진 생가와 한용운 생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나란히 서있다. 이를 따라 들어가면 작은다리 건너편으로 커다란 기와집이 한눈에 들어온다. 김좌진 생가다. 입구를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백야기념관 건물이 있다. 여기에는 백야 김좌진 장군의 인생 여정과 청산리 전투에 대해 소상하게 전시되어 있다. 전투 당시의 전황도를 비롯해 전투에서 사용되었던 화기들도 전시되어 있다. 백야기념관 왼쪽의 조출한 기와집이 실제로 김좌진이 태어나서 어린시절을 보냈던 생가다. 생가터는 일제에 의해 모두 망가지고 심지어 그의 기운을 뺏기 위해 집터 뒤의 산까지 파헤치는 만행을 겪게 된다. 1991년부터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생가와 문간채, 사랑채를 복원했고, 1998년 1월 백야기념관도 개관하였다. 김좌진 장군의 생가터 복원과 기념관 건립은 장군의 탄생 100주년이던 1989년 기념사업회 결성을 계기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92년 5월 26일에 있었던 생가 복원 준공식에는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2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생가복원 기념식에 관계비서관을 보내 장군의 장손인 김경민 씨에게 금일봉을 전하고, 기념관, 사당, 기념비 건립 등 추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좌진(1889.11.24(음)~1930.1.24) 장군은 1889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김형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집안은 부유한 명문대가 였으며 15세 때 집안의 노비를 해방할 정도로 진취적 개화사상이 강하였다. 1905년 서울에 올라와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07년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산을 정리하여 호명학교를 세우고, 대한협회 홍성지부를 조직하는 등 애국계몽운동을 하였다.

1911년 군자금 모금 혐의로 일본경찰에 체포·투옥되어 2년 6개월 간 복역하였다. 1915년 비밀결사 조직 대한광복회에 가입했고, 1916년에는 광복단에서도 활동하였다. 1919년 대한정의단의 기반 위에 군정부를 조직하여 광복운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김좌진 휘하의 독립정예군은 만주 일대에서는 가장 막강한 실력의 군대로, 1920년 이후 10여 년 간 본격적인 항일전투를 전개하였다. 1920년 10월 20~23일 청산리 80리 계곡에서 유인되어 들어온 일본군을 맞아, 3회의 격전을 전개, 일본군 3,300명을 일시에 섬멸하였다. 이를 청산리 전투라 하여 홍범도 장군이 이끈 봉오동 전투와 함께 독립전쟁사상 최대의 승리로 꼽는다.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는 소극적인 독립운동이 아니라 당당한 독립전쟁이었다.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일본 정규군과 대단위로 맞붙은 전투에 평민들이 대거 참가하여 당당히 승리한 것이다. 김좌진 장군은 1925년 신민부를 창설하여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성동사관학교를 설립, 부교장으로 독립군 간부 양성에도 힘썼다. 1930년 1월 24일 중동철도선 산시역 부근 정미소에서 공산주의자 박상실의 흉탄에 맞아 안타깝게도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김좌진 장군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 일이...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 때에 내가 죽어야 하다니 그제 한스러워서...”라고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한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큰 인물이 적군의 총도 아닌 동포의 손에 암살을 당했으니 땅을 치고 통곡할 비극이 아닌가 싶다. 매년 10월에는 백야 김좌진 장군 추모제와 청산리 전투 전승기념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가을이 오면 홍성에 있는 장군의 생가와 기념관에 가서 장군의 발자취를 뵙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맹한 투사가 되어라”

윤봉길 의사가 남긴 유족詩 ‘강보에 싸인 두 병정에게(-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중에서

-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

겨우 스물 다섯의 나이에 사형선고를 받고 어린 두 아들에게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조선을 위한 투사가 되라’고 유

업을 벌였다. 1902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동을 하면서 초등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교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향상을 위해 한인공동협회를 만들고 《공립신보》를 발간하였다.

1906년 귀국하여 1907년 항일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하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1년 시베리아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신민회 청년학우회가 해체되자 1913년 흥사단을 조직하였다.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 조직에 참가했고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공원 폭탄사건으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 가출옥하여 휴양 중 동우사건으로 재투옥되었고, 1938년 병으로 보석되어 휴양 중 사망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200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프리웨이에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 2004년 로스앤젤레스에 ‘안창호 우체국’이 생겼으며 2012년 1월 애크랜타에 있는 마틴루터킹센터 내 명예의 전당에 아시아인 최초로 헌액되었다.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내부 관람은 허용되지 않았다. 대신 공원 곳곳에 세워진 안창호 선생의 사진과 동상을 만날 수 있었다. 공원 가장 안쪽에는 안창호 선생과 부인 이혜련 여사가 묻힌 묘역이 조성되어 있었다. 도산공원은 1971년 기공식을 가진 뒤, 1973년 11월 10일 안창호 탄신 95주년을 맞아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던 도산 선생 유해와 미국에 있던 부인 이혜련 여사의 유해를 이곳으로 이장했다. 묘지에 서서 앞을 바라보니 곧게 뻗은 도산대로 45길이 한눈에 보였다. 두 분은 거기 누워 신사동을 분주하게 오가는 21세기 후손의 모습을 보면서,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한 보람을 느끼고 게실 것 같았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 전에 두 아우에게 남긴 유언 중에서

- 안중근의사기념관 -

안중근의사기념관은 그의 의거 60주년 기념으로 1969년 9월 7일에 착공되어, 안 의사탄생 92주년이며 서거 60주년이던 1970년에 개관식을 가졌다. 기념관 건립은 안중근의사 숭모회가 추진하였는데 박정희 전대통령이 하사한 금일봉을 비롯해 전국민이 모금한 5,360여만원을 들여 지었고, 개관식에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참석하여 개관 테이프를 끊었다는 사실을 지난 신문보도로 알 수 있다.

안중근(1879.9.2~1910.3.26) 의사는 김구 선생과 마찬가지로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진해 현감을 지낸 할아버지가 미국상을 하여 집안은 부유하였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으나 성장하면서 무술에 더 열중하였다. 말타기와 사냥에 능했으며 포수들 사이에서도 명사수로 알려졌다. 1895년 아버지를 따라 가톨릭에 입교하여 신식 학문을 접하고 가톨릭 신부에게 프랑스어를 배웠고 도마[Thomas, 多默]라는 세례명을 얻었다.

1904년 홀로 평양에 나와 석탄상을 경영했는데 이듬해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자 상점을 팔아 그 돈으로 1906년 삼흥학교를 세우고, 이어 남포의 돈의학교를 인수하여 인재양성에 힘썼다. 그러나 국운이 극도로 기울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07년 연해주로 가서 의병운동에 참가하였다.

1909년 동지 11명과 동의단지회를 결성하고, 죽음으로써 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손가락을 끊어 맹세했다. 그해 10월 26일 일본인으로 가장, 하얼빈 역에 잠입하여 역 플랫폼에서 러시아군의 군례를 받는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하얼빈 총영사, 궁내대신 비서관 등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러시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체포된 안 의사는 일본 관헌에게 넘겨져 중국 뤼순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이듬해 2월 14일,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3월 26일 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으며, 옥중에서 회호한 많은 유묵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남산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는 위치는 민족정기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세운 조선신궁이 있던 자리라고 한다. 1925년에는 남산에 여의도 면적 두 배에 가까운 대지 위에 15개의 건물이 있었다고 하니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만행에 새삼 분노가 일어난다. 지금은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조선신궁의 추악한 기를 누르고 그 곳에 서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약간의 위로가 된다.

봄기운이 완연한 남산을 걸어 올라 안중근 선생의 기념관을 둘러 보았다. 역시 임시 휴관중이라 사이버 관람에 그쳐야 했지만 전시관 내부를 360도로 자세하게 촬영한 영상을 전시관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었다.



백야기념관 개관일: 1998년 1월 |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백야로546번길 12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관), 1월1일, 설날/추석 | 소장품: 독립군들이 사용한 무기류(장총, 권총, 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와 대한독립선언서, 북로시령부 직원 명단, 대한독립선언서, 임시정부의 청산리대첩 전투결과보고서 등 여러 문서



매현윤봉길의사기념관 설립일: 1988년 12월 1일 |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현로 99 양재시민의숲 | 규모: 대지 6,586㎡(1,996평) 연건평 2,627.05㎡(약 796평) | 용도: (1층) 제1, 제2 전시실, 중앙홀 (2층) 도서관, 자료실, 사무실, 매현연구원 (3층) 강당, 영상실 | 주소소재지: 윤봉길 의사 유묵 및 자서전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동절기 5시) |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 날 휴관)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언하는 시를 남기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매현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을 찾아 양재 시민의 숲
역에 내린 날은 햇살도 바람도 화창하고 평화로웠다. 다행히 문을 연 기념관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손 소독제로 손을 닦
은 후 입장했다. 들어서자마자 중앙홀에서 커다란 태극기를 뒤로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앉아 있는 윤봉길 의사의 동상
을 만났다. 벽에는 홍커우 공원의 의거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코로나의 여파로 아무도 없는 제1 전시실과 2전
시실을 천천히 둘러 보았다. 윤 의사의 일대기와 어록, 생활유품, 농촌 운동 하시던 부흥원을 재현해 놓은 모형물들이 있
었다. 의거 당일 김구 선생과 서로 바꾸었다는 회중시계와 도시락 폭탄도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실물은 충남 예산의
윤 의사 생가에 있고 양재에는 대부분 복제품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매현윤봉길의사기념관은 1988년 12월 1일에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상만 기
념사업추진회장, 한경직 목사, 전석훈 보훈처장, 독립운동 관계자, 유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기념관은 1987년 윤
의사 상해 의거 55주년을 맞아 전경련 산하 62개 회원사가 기탁한 15억원을 재원으로 세워졌다.

윤봉길(1908.6.21~1932.12.19) 의사는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다. 10세 되던 해인 1918년 덕산 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
나, 다음 해에 3·1운동이 일어나자 민족정신의 영향으로 식민지 교육을 거부하고 자퇴하였다. 동생인 윤성익과 함께 한
학을 공부하였고, 1921년부터는 오치서숙에서 사서삼경 등 한문학을 계속하였다. 한문학 공부를 마치고 1926년부터는
농민계몽·독서회운동 등 농촌사회운동을 떠나갔다.

1929년에는 ‘부흥원’이란 단체를 설립하여, 농촌 부흥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30년 만주로 떠난 윤봉길 의사
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야 성공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렌, 칭다오를 거쳐 1931년 8월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인 김구를 찾아가 그의 뜻을 말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하였다.

1932년 일본군은 일본 국왕의 생일축일인 천장절과 전쟁 승리 두 가지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갖기로 하였는데, 윤 의사
는 이 기념식장에서 거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1932년 4월 26일 한인애국단에 입단하여 김구, 이동녕, 이시영, 조소앙 등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거사를 구상하였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감추고 식당에 입장해 식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수류탄을 던졌다. 이 폭발로 시라카와 일본군 대장과 일본인 거류민단장 가와바다는 즉사하였고, 제3함대 사령
관, 제9사단장, 주중공사 등이 중상을 입었다.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일본군에 체포되었고,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32년 11월 일본으로 옮겨져 오사카 위수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19일 총살형을 받고 25
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 등 세계에 알려졌다,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는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
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격찬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기념관을 나와 양재 시민의 숲을 조금 걸었다. 한가롭게 산책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나라를 지킨 독립
영웅들의 기념관이 공원이나 산에 자리하고 있어, 그 속을 찾는 후손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뜻 깊게
다가왔다. 그 분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조국과 동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

에필로그

올해 3·1절 101주년을 맞아 한 은행에서 가로 15M 세로 7M 규모의 대형 벽화를 건물 외벽에 그려 전시한 일이 있었다.
벽화의 제목은 ‘독립 영웅 11인의 미소’였다. 이것을 그린 그래픽 아티스트는 돌아가신 그 분들의 사진 중 단 한 장도 웃
는 모습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래서 독립 영웅들이 미소 짓는 얼굴을 상상해서 그렸다고 한다.
아무 걱정 없이 배불리 세 끼를 먹을 수 있고, 우리 글과 우리 말을 쓸 수 있는 대한민국에 별 같고 꽃 같은 그 분들이 살
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가 극찬하는 방역 시스템이나 BTS, 기생충 같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그리고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 물건들을 보셨다면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 아마 날마다 유쾌하게 웃으셨을 것이다. 그 웃음을 볼 수 없
는 현실에 마음이 쓰라려온다.

그 분들을 잊지 말아야지, 그 뜻을 되새기고 이어가야지,

기념관에도 더 자주 들러야지... 그리고

홍범도 장군처럼 제대로

모시지 못한 독립 영웅에

대한 기념사업도

예를 갖추어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



독립전쟁 원년 선포 10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을 다시 생각한다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올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한 지 100주년, 그리고 독립전쟁 과정에서의 위대한 승리인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가 벌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게다가 독립전쟁의 최종 귀결점인 임시정부의 군대 한국광복군이 출범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독립전쟁이란 측면에서는 여러모로 뜻깊은 해일 수밖에 없다.

110년 전인 1910년 대한제국은 일제에 강제로 병합되었다. 강제병합 이전부터 나라 안팎에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항일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군’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무장투쟁 곧 독립전쟁이었다. 독립전쟁론이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게 된 것은 의병전쟁에서 일제에 졌기 때문이니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일제와 독립전쟁을 벌여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리킨다. 이러한 생각 아래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편 실제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나가다가 결정적 시기가 되었을 때 일제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독립을 쟁취하려는 일련의 활동이 독립전쟁인 것이다.

강제병합 이전부터 시작된 독립전쟁의 흐름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날까지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지속되었다. 많은 애국지사가 독립군에 들어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 더 많은 애국지사가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활동에 헌신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독립전쟁에 참여한 애국지사의 전체 규모를 알지 못한다. 몇 해 전에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되었던 〈신흥무관학교〉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 가사처럼 독립군은 기록도 이름도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립군은 ‘이름없는 별들’로 독립운동사에 남아 있다. 다만 ‘이름없는 별들’을 이끈 독립전쟁의 지도자들만은 역사에 빛나는 이름을 남겼다.

그 가운데서도 각별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 홍범도장군이다. 홍범도장군은 독립전쟁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1895년 의병부대를 조직해 일제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이래 1922년 독립전쟁의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30년 가까이 국권수호와 조국광복을 위해 무력으로 일제에 항거했고 독립전쟁의 3대 대첩으로 꼽히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다.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한 바로 그 해에 거둔 병력도 무기도 열세이던 독립군이 두 차례에 걸쳐 정규 일본군에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이후 독립전쟁은 물론 나아가 전체 독립운동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홍범도장군은 백두산 호랑이, ‘날으는 장군’이라고 불렸다. 1910년대 후반 이후 만주동포 사이에서는 “뛰는 김좌진, 날으는 홍범도”라는 말이 널리 퍼졌다. ‘날으는 홍범도’라는 신화화에는 홍범도장군이 이끄는 독립전쟁에 대한 민중의 기대와 열망이 담겨 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의 말년은 비극적이었다. 독립전쟁 일선에서 물러난 노(老)장군은 소련 스탈린정권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쫓겨났고 끝내 조국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1943년 서거했다.

독립전쟁 원년 선포 100주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승전 100주년을 맞아 정부에서는 홍범도장군의 유해 봉환을 추진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홍범도장군은 남북 모두에서 존경 받는 독립운동가다. 남북의 동포가 함께 장군의 영전 앞에서 장군께서 꿈꾸다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

독립전쟁 기념일을 제정하자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올해는 봉오동·청산리대첩 100주년이다. 국치 9년 만에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워 크게 물리친 역사적인 해이다. 나라를 일제에 빼앗긴 우리 민족은 국권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의병전쟁 △의열투쟁 △무장전쟁 △외교론 △실력양성 △계급투쟁 △아나키즘 등이 그것이다. 이들 방안은 나름대로 명분과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고, 단독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한민족은 일제의 야수적인 총칼 아래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의병전쟁과 의열 투쟁을 전개하고, 해외에서는 이와 함께 무장전쟁을 감행하여 왜적과 싸웠다. 일제강점기에 가장 통쾌하게 왜적과 싸워 승리를 쟁취한 것이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대전자령 전투이다. 항일독립전쟁의 3대첩이다.

우리 애국지사들은 국치 직후인 1911년부터 무장전쟁을 목표로 만주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관을 양성하였다. 우당 이회영 일가와 석주 이상룡 일가 등이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신흥무관학교는 3,500여 명의 독립군을 배출하였다. 이들이 의열단을 조직하고 3대첩을 달성하고 독립군과 한국광복군 그리고 조선의용대의 핵심 간부가 되었다. 신흥무관학교 뿐만 아니라 만주와 연해주 지방의 애국지사와 교민들은 각종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하는 한편 독립전쟁에 대비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봉오동·청산리·대전자령대첩 등 무장전쟁이 없었다면 우리 독립운동사는 몹시 빈약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 한민족의 패기와 의기는 그만큼 취약하게 보였을 것이다. 우리는 3대첩이 있었기에 부끄러운 식민지 시대를 씻을 수 있었고, 당당한 민족의 상무 정신을 이으면서 향후 어떤 외적의 침략에도 맞설 수 있는 국민적·민족적 결기를 다지게 되었다. 3대첩은 그만큼 민족사에 큰 의미를 주고 있다. 3대첩은 국치를 전후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된 의병 전쟁의 결실이고, 이후 항일 무장투쟁과 의열 투쟁, 독립전쟁의 발화점이 되었다.

우리 민족은 일제 패망 때까지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독립전쟁을 치렀다. 세계 식민지 역사상 초유의 기록이다. 그럼에도 낡은 식민사관의 유제로 패배와 좌절의 시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라도 ‘독립전쟁기념일’을 제정하여 면면하게 이어져 온 독립전쟁의 위대한 투혼과 희생정신을 기렸으면 한다. 민족정기와 나라 사랑 정신의 산교육이 될 것이다.

임시정부수립기념일, 의병의 날, 국군의 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순국선열의 날 등 관련 기념일이 없는바 아니지만,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총체적인 항일투쟁이 모두 독립전쟁이었으므로 독립전쟁 기념일은 꼭 필요하다. 봉오동·청산리대첩 100주년을 맞아, 첫 승전보를 올린 6월 7일을 ‘독립전쟁 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



홍범도 장군은 이북실향민들의 정신적 지주 수도권에 장군의 추모공원을 조성, 남북 통합의 지표로 삼자

염승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장



북녘이 고향인 이북 실향민들의 대표기관인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연합회장으로서 평생을 무장독립투쟁에 헌신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의 투철한 민족정신과 결연한 항일의지를 되새길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 할 것을 제안한다. 추모공원은 독립투쟁에 전 생애를 바치신 장군의 위대한 삶을 되돌아보는 역사의 교훈뿐만 아니라,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홍범도 장군은 남북한에서 모두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이기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진 정치이념이나 역사의식을 통합하는 지표로 삼아야 한다. 홍범도 장군은 평양에서 출생했고, 함경도 지역에서 의병투쟁을 한 이북 실향민들의 정신적 지주라 하겠다. 독립군의 상징이었던 홍 장군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의병을 일으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셨던 애국지사분입니다. 유년시절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불과 15세의 나이에 군에 입대해 일제와 당당히 맞서며 의병활동을 하셨다. 무장투쟁 과정에서 아내와 두 아들도 잃어야 하는 개인적인 불행 속에서도 조국을 향한 독립투쟁은 거침없이 진행하셨다. 특히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탁월한 지략과 전략 전술로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독립전쟁사상 대승을 거둬 일제에게 큰 충격을 줬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만천하에 고하기도 했다. 봉오동과 청산리전투는 세계 최강이라는 일제 정규군과 싸워 이긴 최초의 승리이었으며, 암울했던 당시 우리 동포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안겨주며 자주독립의 의지를 각인해 준 승전보였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여 고려인 동포들의 구심점이 되었었다. 1943년 순국하시자 고려인 동포들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묘지공원을 조성하여 독립운동의 최고 영웅으로 예우하였고, 크즐오르다 주정부에서는 장군이 거주하는 인근 도로를 홍범도 거리로 명명하여 추모했다. 묘지는 고려인 동포들이 수차에 걸쳐 모금하고 홍상과 추모 시설을 건립하여 고려인의 정신적 인 상징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지 못하여, 우리 이북 실향민사회는 매우 착잡함을 넘어 송구하게 생각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대통령을 만나 장군의 유해봉환을 요청하여 금년에 실현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 장군은 유해는 장군의 독립전쟁의 업적을 고려하고, 다른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추모시설과 비교하여, 독립적인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전 국민의 사표로 모셔야 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께서 밝혔듯이 장군의 유해봉환과 함께 장군의 충혼을 담아낼 수 있는 추모공간을 접근성이 편리한 수도권에 마련해야 될 것이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성찰하고, 홍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상징물을 설치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정신의 기개와 애국정신을 지켜볼 수 있길 거듭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홍범도 장군이 대한 평가가 소홀했던 점을 감안하여 독립전쟁의 과정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할 국민교육의 전당이 되도록 관리해야 될 것이다. 📌

날으는 홍범도 장군의 추모공원과 기념관을 조성해야 합니다

홍성종 남양홍씨 남양군 대중중회장

“당당한 독립군으로 신(身)을 탄연포우(彈煙砲雨) 중에 투하야 반만년 역사를 광영케 하며, 국토를 회복하야 자손만대에 행복을 여(與)함이 아(我) 독립군의 목적이오 또한 민족을 위하는 본의라”

독립운동사에서 빛나는 첫 승리로 기록된 봉오동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던 민족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공포한 유고문 가운데 글입니다. 일본군이 “하늘을 나는 장군(飛將軍)”이라고 부를 정도로 탁월한 지도력과 치밀한 유격전술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던, 항일 무장투쟁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올해가 바로 봉오동 전투 100주년인 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 독립운동 101주년 기념사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하여 안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 시 함께 추진될 전망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은 그동안 독립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분단의 현실과 장군의 묘역이 여전히 카자흐스탄 동포 사회의 구심점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되어 돌아오지 못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여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소식을 전한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이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가치를 일깨우고 선열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또 “독립운동가 한분 한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일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갈 힘을 키우는 일”이라며 “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해주에서 독립군을 이끌던 홍범도 장군은 1937년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고 1943년 사후 이곳에 묻히셨습니다. 그동안 고려인 동포들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묘지공원을 조성해 장군을 민족지도자로 기리며 영웅으로 예우해왔고, 크즐오르다 주정부는 홍범도 장군이 거주하던 곳 인근 도로를 ‘홍범도 거리’로 명명해 그의 업적을 기려왔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남북한에서 함께 존경을 받는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면 그의 공적에 걸맞은 묘지 조성은 물론, 동상과 기념관 등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의 최고 영웅답게 윤봉길 의사나 안창호 선생의 추모공원과 비교해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추모공원에는 “나보다 이름 없이 순국한 수많은 독립군이 영웅”이라는 홍범도 장군의 뜻에 따라 무명용사를 기리는 기념비도 만들어야 합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의 도리이며, 사명입니다. 많은 역사 전문가들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으로 항일 독립전쟁 역사를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국권회복을 향한 무력투쟁에 앞장섰던 홍범도 장군의 위업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 모두에게 홍범도 장군의 추모공원은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서 정신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

높고 빛나며 뜨겁고 외로운

세상에,
나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자란 것이냐.
내 머리에 든 패배의식은 내가 만든 것인가,
누가 만들어 넣어준 것인가

의병대장 홍범도, 홍범도 장군!

그에 대해 아는 게 뭔가. 처음 홍범도장군 관련 소설을 쓰기로 했을 때 내가 스스로한테 던진 질문이다. 홍범도는 조선 국권이 일제에 피탈당한 뒤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었다는 정도였다. 나는 홍범도만 모른 게 아니라 독립투사들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평생 술한 자리에서 순국선열들께 묵념할 때 그저 치르는 의례로 여겼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인 채 서 있었을지라도 애국의 의미를 생각지 못했다. 순국선열이 어떤 존재들인지 깊이 생각한 적도 없다. 당연히 그들이 가슴에 와 닿은 적도 없다.

그 동안 나는 구한말에서 6.25에 이르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될수록 피해왔다. 그 시대에 대한 내 상식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라 할 수 있었다. 내 속에 각인된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패배의 역사였다. 일제에 찢기고 6.25 전쟁으로 부서진 나라. 그런 우리나라는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다. 그 시대를 본격적으로 다룬 건 드라마든 영화든 소설이든 보기 싫어 늘 외면했다. 작가가 된 후 그 시대를 내 소설 속에서 다뤄야 할 때는 주인공 개인사에 필요한 정도로만 썼다. 그러니 내가 홍범도라는 인물을 어찌 알았겠는가.

먼저 인터넷에 나타난 네댓 쪽짜리 홍범도 관련 자료를 읽었다. 현실에서는 소설보다 극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소설 주인공보다 더 소설적인 현실 인물도 드물지 않다. 그래도 현실 인물을 소설 주인공으로 삼기는 어렵다. 현실 인물한테는 현실이 빚어내는 온갖 구지레함과 타성과 인습과 굴종이 어쩔 수 없이 배어있다. 작가 입장에서 현실 인물, 실존 인물들은 매력을 느끼기 힘들다. 소설로 쓰기는 더 어렵다. 그래서 실존 인물을 소설로 끌어들이려면 허구 인물로 가공을 해야 한다. 실재를 허구화시켜서 소설적 실재를 만들어 낸다. 참을 거짓으로 만들어 다른 참을 만들어내는 격이랄까. 그 과정에서 현실인물이 지닌 매력적이지 못한 요소들도 소설 주인공의 특징이나 성격으로 변화한다.

홍범도에 관한 자료를 읽는 동안 연신 가슴이 뛰었다. 그의 삶은 여과하거나 가공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체로 소설이었다. 영웅담이었다.

갓난아이를 두고 세상을 뜬 어머니며 젖동냥으로 아기를 키운 아버지. 열다섯 살에 평양 진위대에 입대, 몇 년 후 탈영하여 종이공장 일꾼노릇을 하고. 스님이 되었다가 여승을 만나 사랑하고. 운명인 듯이 항일무장 투쟁을 시작하고. 일제에 의해 아내와 아들을 잃고. 봉오동과 청산리를 지나 러시아 땅에서 생을 마치고. 망해가는 나라에서 태어나 망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살았던 홍범도의 삶은 패배의 역사가 아니었다. 그는 승리하며, 중국의 승리를 위해 전진하는 전사였다. 그의 승리는 조선의, 대한의 승리였다.

자료를 읽고 나서 한탄했다. 세상에, 나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자란 것이냐. 내 머리에 든 패배의식은 내가 만든 것인가, 누가 만들어 넣어준 것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 당장 홍범도에 관한 책 몇 권을 주문했다. 책을 읽는 동안 내 패배의식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내 의식의 밑바닥에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민중들에게 심어놓은 식민지 사관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었다. 홍범도와 내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가 깨부수려했던 일본과 일본 것들이 드러운 그늘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나. 이게 나만의 일이라, 했다.

일필히지하듯, 날개 달린 듯이 술술 소설을 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겼으나 내 오산이자 착각이었다. 그는 세세한 연대기를 지닌 실존인물이었다. 기록된 그의 족적들은 사뭇 뚜렷했다. 뚜렷한 그 족적들은 하나 같이 극적인데다 빛나기까지 하는지라 '허구인물로 가공하기'가 어려웠다. 실재를 허구화시켜서 소설적 실재를 만들어야 글을 쓸 텐데, 쉽지 않았다.



소설가
홍이진

소설 홍범도 작가

1964년 전남 고흥 출생. 1995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꿈꾸는 실낙원』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불꽃섬』, 『한 꽃살문에 관한 전설』, 『소울 메이트』, 『도둑의 누이』, 『사랑을 묻다』 『왕인(전3권)』,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매구 할매』, 『반야(전10권)』, 『달의 습격』 등의 장편소설을 썼으며, 『딸꾹질』, 『남녀 실종지사』, 『나의 빈틈을 통과하는 것들』 등의 소설집을 출간했다.

백여 년 전 그가 살던 조선으로 내가 들어갔다. 그가 되어 보았다. 소설을 쓰는 동안 그의 눈으로 당시대를 보고 느끼고 그의 생각으로 그때 세상을 생각하려 애썼다. 나를 그에게 투영해서 만나게 된 조선은 암담했다. 적군은 날로 강성해지고 거대해 지고 있었다. 홍범도, 그는 끊임없이 일본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이겼으나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의 독립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 희망이 너무 멀었다. 그는 외로웠고 나도 외로웠다.

그에게 투영했던 나를 분리시켰다. 그에게서 빠져나와 그를 보니 그가 다시 보였다. 내 소설 주인공인 그는 외로웠을지라도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지닌 투사였다. 그는 대한 독립을 향한 꿈과 의지가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술한 동지들을 아우르며 수행하는 빛나는 전투 능력을 가졌다. 그는 천생 대장이었다. 그렇게 그를 보자니 그와 함께 싸운 독립투사들이 보였다. 그에게는 동지들이 있고 대한의 민중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외롭지 않았다. 비로소 소설이 써졌다. 높고 빛나며 뜨겁고 외로운 그의 삶을 내 식으로 서술해 나가는 동안 그로 인해 아프고, 그로 인해 뜨거웠다. 📖

1920년 독립전쟁의 첫 승리, 봉오동전투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독립전쟁의 해’, 봉오동전투 승리 100주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0년은 3·1운동 1주년이 되는 해이다. 1920년, 우리 민족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반제반식민지 민족해방투쟁전선에서 당당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계사적 측면에서 볼 때, 1년 전의 3·1운동이 평화적 시위운동의 선구였다면, 봉오동전투로 시작된 1920년의 항일무장투쟁은 반제반식민지 무장투쟁의 선봉이었다고 할 것이다.

상해의 통합임시정부는 1919년 11월 3일, 오랜 우여곡절 끝에 국내외 동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하였다. 이러한 통일적 분위기에 서 통합임시정부 국무원은 임시정부의 시정방침의 대강(大綱)으로 ‘우리 국민이 단정(斷定) 실행할 6대사(六大事)’, 즉 군사, 외교, 교육, 사법, 재정, 통일의 여섯 개 과업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군사’를 최우선의 첫 번째 과업으로 설정하면서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독립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자주와 독립을 가져다 줄 최고단계의 독립운동이었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그동안 견지했던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독립전쟁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미국 등 서구열강의 도움을 기대했던 평화적 만세시위운동으로서 3·1운동이 일제의 무자비한 무력진압으로 좌절된데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3·1운동은 전민족적 대일항쟁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파리강화회의를 주도할 미국과 월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기대에 근거하여 기획, 준비된 것이었다. 이처럼 기획된 3·1운동은 처음부터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남의 힘을 빌어 독립을 얻자는 대외의존적 노선이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7천여 명의 피살자를 비롯하여 너무 많은 희생과 민족적 역량의 소모를 가져온 운동이었다.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선포’는 한말이래 1910년대에 걸쳐 러시아 연해주와 서북간도 독립운동세력이 일관되게 추구해온 항일무력투쟁노선이 독립운동의 기본노선으로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일본과의 외교적 타협을 한 러시아와 중국당국에 의해서 탄압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같은 연합국의 일원인 일본과 시베리아 내전에 ‘공동출병’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주도할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 문제가 상정될 것이라고는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봉오동전투의 승리, 북간도 항일무장세력의 단합의 결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일본과 맞서 ‘독립전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동포들의 ‘일심일체로

의 단합’이 필수적이었다. 특히, 독립전쟁의 중추가 될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 구체적으로는 3·1운동 이후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서북간도 항일무장단체들의 단합과 통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항일무장단체들의 연합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 왕삼덕, 안정근 등 특파원들을 북간도로 급파하였다.

독립군단체들 역시 대외적으로 각자의 종교적, 지역적 배경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통일을 제창하면서 1920년 3월 이후 8월 중반까지 연합회의를 가졌고, 특히 5월 중순 이후에는 임정특파원들이 가세하여 연합을 서둘렀다. 봉오동에서의 승리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최운산·최치흥 3형제의 군무도독부, 대한민국회 세 단체의 연합세력(북로독군부)과 신민단 등 북간도 지역 항일무장단체들이 합심하여 일궈낸 승리였다. 북로군정서가 불참하여 부분적인 연합에 그쳤지만 북간도지역 독립군단체 일부의 연합작전의 성과였던 것이다. 이 점이 분열된 상태에서 일본군과 맞닥뜨렸던 청산리전투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봉오동전투에서의 승리를 스스로 선포했던 바 ‘독립전쟁의 제1회전’이라고 명명했고, 봉오동전투 승리를 이끈 3단연합의 한 축인 북간도 국민회의 간부들은 “독립전쟁의 개시”, “독립전쟁 제1차 대승리”라며 국내외에 승전보를 알렸던 것이다.

농민대중, 민초들의 전폭적 지원으로 얻어낸 승리

1919년 가을 본격적인 항일무장항쟁에 나서기 위한 전열을 정비했던 독립군들은 1920년 3월이후 6월초에 이르기까지 30여회에 걸쳐 두만강을 건너 국경의 일본수비대를 공격하였다. 6월 4일 독립군 1개소대가 월강하여 중성의 국경수비대를 공격하고 돌아가자, 일제당국은 독립군을 멸살하고자 추격대와 토벌대를 편성하여 월강하였다. 일본군의 선봉은 과소평가와 달리, 독립군은 체제 정연하고 규율이 엄연했으며, 체코군과 러시아군으로부터 확보한 무기를 구비한, 그야말로 정규군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봉오동의 지리적 사정에 밝은 데다 노련미까지 갖춘 홍범도 등 독립군 지휘부의 매복 전에 걸려든 일본군은 쓰라린 패배의 맛을 볼 수밖에 없었다.[현지 국민회 제2북부지방회장 김정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군 장교 3명, 병사 49명 전사,아군 2명 전사, 경상 2명. 임시정부는 적군 157명 전사]

봉오동전투 이후 일제는 독립군 활동의 배후에 서북간도 한인동포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 있던 한인 농민들은 군자금을 비롯하여 식량과 의복을 제공하였으며 적의 동향에 대한 정보 전달 등 헌신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봉오동전투를 지휘했던 독립군사령관 홍범도는 동포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고 스스로 동포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는 점을 몸소 절감하고 있었다. 그는 “고향산천을 떠나 타국의 영토를 떠돌아다니며 비참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동포들로부터 금전과 곡식의 의연을 받고 있는 것이 심대한데, 만일 우리가 독립의 뜻을 버리거나 세계 각국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있다면”“우리 동포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고 말하여 농민들로부터 폭넓은 동감과 신뢰를 얻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군은 독립군의 공격에 대해 분풀이라도 하듯, 24명 가량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고, 이들을 독립군 전사자로 발표하는 뻔뻔함까지 드러내었다. 일본군의 양민학살은 심각한 야만적 전쟁범죄행위이며, 임진왜란, 갑오농민전쟁, 의병전쟁 당시 그리고 3·1운동 당시 비무장 상태의 평화적 양민들을 총칼로 진압하던 학살행위의 연속이었다.

일제의 보복적 만행으로서의 경신참변

일제는 식민지체제에 크나큰 위협을 주고 있는 독립군을 근절하고 이들 독립군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서북간도의 한인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파괴와 학살에 나섰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교육지책으로 만주 마적을 동원하여 일본영사관을 공격케 한 훈춘사건(10월 2일)을 조작하여 ‘출병’의 명분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조선군, 관동군, 시베리아 침략군 등을 망라한 2만 5천명에 달하는 일본 침략군이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포위하듯이 서북간도 각지를 점령하였다. 홍범도는 자신의 일지에서 “일병(日兵)이 로씨야에서 철병하여 나오는 놈이 수만 명이 북간도에 폭 들었다”라고 회상했다. 일본군의 간도 침공은 또한 중국 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였으며 침략행위였다. 이후 10월 9일부터 11월 31일까지의 2개월 동안 일본군은 서북간도를 횡행하며 무고한 평화적 농민들을 대량 학살했다. 일본 침략군은 3천 5백명에 달하는 한인 농민들이 학살하였으며, 민가, 학교, 교회를 불지르고 파괴하고 재산을 강탈하였다. 성인 남성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고, 심지어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무도 불법의 일본군은 무고한 농민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총과 도검으로 쓰고 찢어 죽였다. 할아버지와 손자,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 아기를 잉태한 산모 등을 가리지 않고 일본군은 극악무도한 학살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앞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4월 4~5일 동포 수십명이 학살당한 연해주에서의 4월 참변은 일본 간섭군에 의한 집단학살의 서곡이었으며, 청산리전투를 전후로 하여 10~11월 2개월에 걸친 서북간도에서의 경신참변은 일본군이 저지른 학살과 만행의 절정이었다. 장암동 마을 학살 등

일본군의 만행은 선교사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다.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는 간도에서 참살당한 동포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세계 고금에 이와 같은 극히 참혹한 혈사(血史)가 어디 있으며, 이와 같이 잔학한 야만 종족이 있는가”며 개탄하였다.(임시정부 주최 순국제열 추도회. 1920년 12월 10일)

봉오동 전투 승리의 의의와 교훈

봉오동전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선 봉오동 전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낸 성과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년 전 파리강화회의에서 월슨 대통령의 미국 등 서구열강이 우리의 독립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대외의존적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우리의 힘으로 일궈낸 승리였다. 봉오동전투의 승리는 아시아 최강, 세계 3위의 막강한 일본군을 상대로 거둔 승리로서 북로군정서 등 일부가 불참했지만 북간도 항일무장세력의 연합에 의한 쾌거였다.

봉오동전투의 승리는 조선시대 내내 지역적 차별과 지배계급의 착취에 억눌려 살았던 민초들, 함경도 농민들의 성원과 희생으로 가능하였다. 일제 당국은 항일무장투쟁의 원천을 말살하고자 한인사회에 대한 대대적 파괴와 잔인무도한 학살로 보복하였다. 경신참변은 일제식민지 통치의 비인간적, 비인도적 잔인성과 가혹한 참상을 절감케 하는 또 하나의 참극이었다.

이처럼 1920년 한 해는 우리 동포들에게 승리의 기쁨 못지않게 생지옥과 같은 비극적 참상의 한 해였다.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엄격하고 처절하다. 상상 이상으로 천인공노할 학살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마다 더욱 그렇게 느낀다. 40주년을 맞고 있는 5.18의 영상들을 보면서 경신참변 등 일제의 학살의 역사를 떠올리며 그 님음끝에 전율을 느낀다.

봉오동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념, 종교, 지역을 뛰어넘는 민족대단결, 외세의 개입 없는 자주적 독립노선, 평범한 민초들의 지지와 신뢰의 중요성 등이 될 것이다.

남북이 경쟁을 한다면, 평화적인 공존공영을 전제로 하는 경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누가 민족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가, 누가 민족공동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가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외세를 끌어들이려 같은 민족을 배척하고 말살하는 반민족적 배신이나 반칙 없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만이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민족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항일전쟁 100주년, 홍범도 장군께서 보내신 편지

함세웅 신부

여러분, 고맙고 반갑소!

봉오동, 청산리 전쟁 백년을 맞아 이렇게 소식지를 발행하고 알찬 행사를 펼치니, 참으로 고맙소.

나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州) 묘소에 계봉우 동지 등과 함께 편안히 누워 있소.

나는 1868년 평양에서 머슴이신 아버님, 고아인 어머님에게서 태어났소. 그러니 올해가 내 나이 백선셋이오.

어머님께서는 나를 낳고서는 돌아가셨소.

이에 아버님께서 나를 안고 동네 부인들을 찾아 다니시며 젖을 먹여 키우셨소.

그런데 아홉 살 때 아버님께서도 돌아가셨소. 고아가 된 셈이오.

그러나 나는 결코 고아가 아니오. 왜냐하면 삼천리 강산, 조선과 대한 이 바로 내 어머니, 모국이며

나를 젖먹여 살려 주신 분들이 또한 모두 내 어머니들이시기 때문이오.

1882년 임오군란때 나는 삼년간 군 생활을 하고 그 후 삼년간 머슴살이도 했다오.

그러나 뜻한 바 있어 금강산 신계사에 들어가 승려생활도 했는데 그때 근처 신계사의 단양이씨 비구승을

만나 그만 파계, 결혼을 했소.

이게 업보인지 그만 원산에서 그 부인을 탈취당하고 실의에 빠져 있던터에 강원도 회양군 덕태 장터에서

사냥꾼을 만나 온갖무술을 익히며 호랑이를 잡을 정도의 명포수가 되었소.

1894년 동학 농민전쟁때 27살이었는데 전봉준 장군께서 처형당하신 소식과 민비 살해사건을 듣고서는

뒤통자, 심장에 피가 끓어올라 침략군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의 길을 걸으며 김수협 동지등 옛 전우들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왔소.

그런데 이 즈음에 북청에서 기적과 같이 다시 아내를 만났소.

그때 큰아들 용범이 일곱 살, 그리고 곧 둘째 용환을 갖게되었소. 이때가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소.

1905년 러일전쟁 후, 을사늑약 때에 다시 항일의병 포수들의 연대 모임에서 내가 대표가 되었소.

그 후 태양옥, 차도선등 동지들과 함께 의병부대를 조직해 삼년간 일본군들을 공격했소.

그때 큰아들이 총탄에 목숨을 잃고 둘째는 일제 관헌의 고문후유증으로 죽고 아내도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났소.

이제 홀로 된 몸, 두 번째 출가로 연해주 한인촌으로 가 온몸을 다해 항일 독립 전쟁에 헌신했소이다.

그때 동지들과 함께 훨훨 날아다니며 일본군들을 격파했고 대표적으로 1920년 3-6월 사이에 국내 진공을

서른 두차례나, 그리고 6월 7일에는 봉오동 전투에서 일제 군인들을 삼백여명 격파했소.

그때 대한북로독군부 사령관 최진동, 참모장 최운산 두분을 비롯해 안무 등 지휘부 동지들의 노고가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소.

또 10월 21일부터 6일간 청산리에서 북로군정서 총재 서일 사령관과 김좌진 동지와 함께 일본군을 섬멸했소.

항일 전쟁 100주년의 주역들인 이분들을 더욱 정성껏 기억해주시기 바라오. 이분들의 공이 매우 크오이다.

그후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때로 우리는 외톨이가 되기도 했었소.

가장 가슴 찢어지는 일은 바로 1921년 이른바 자유시 참변사건이오.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결국 러시아인들에게 비참하게 모두 살해된 일이오.

지금의 남북 분단을 예시한 사건같소. 부디 뜻을 모아 남북이 평화 공존을 이룩하기 간절히 바라오.

그 후 나는 고려공산당에 가입했고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 정책으로 20여만명의 동포들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에서 중앙아시아로 끌려와 카자흐스탄에 자리잡고 늘 동포들과 연대하며 지냈소.

조선극장에서 수위장으로 일하던 중, 그만 강도를 당해 1943년 10월 25일 75세로 세상을 떠났소이다.

이곳 고려인들은, 나를 비롯한 항일 독립투사들을 수호신처럼 기억하고 있다오.

그러니 올해 나의 유해를 한국으로 이장할 계획이라는데 나는 그대로 이곳에 있는게 좋겠소.

동지들과 동족인 고려인들을 놔 둔채, 내가 떠나는것은 인륜상 예의가 아닌것 같소.

내 무덤이 있는 이곳이 바로 조선과 대한, 모국의 영역이 아니겠소.

여러분의 뜻은 고맙지만 이장은 통일된 후에나 의논합시다.

큰 당부가 하나 더 있소. 동지들이여, 참으로 고맙소. 부디 친일잔재 청산을 해 주시오.

미 군정시절, 해방된 조선의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조직한 조선교육위원회는 김성달, 현상운, 유억겸,

백낙준, 백남훈, 김성수, 김활란, 최규동, 윤일선, 조백현, 정인보 등 대부분 친일파로 구성되어

교육체계를 형성했었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구성한 국사 편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신석호, 이병도, 김성균 등 모두 친일파들이었소.

이게 있을수 있는 일이오? 항일전쟁 100주년을 친일잔재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원년이 되어야 하오.

지난 과오를 깨닫고 바른 민족역사를 기록해주시기 바라오.

끝으로 봉오동, 청산리 전쟁 뿐 아니라 만주벌판 등 곳곳에서 조국독립을 위해 몸 바친

익명의 모든 독립군 동지들을 더욱 정성껏 기억해 주기를 당부하오. 참으로 고맙소.

나는 이곳 하늘나라에서 끊임없이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 빌고 또 빌겠소.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

고려인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은

고려인에게 민족적 유대감과

역사의식을 다지는 계기



노 알렉산드르 대한고려인협회장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각국을 방문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독립운동가 계봉우 선생과 황운정 선생의 유해를 배우자와 함께 송환했다. 당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외국에 안장되어있는 독립 운동가들의 유해를 봉환하려는 꾸준한 노력과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현된 것이었다.

이번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남북한의 대치상황에서 특정 국가로 송환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외교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반대하여왔다고 한다. 또한 고려인 동포사회에서도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의 상징적인 영웅인데, 송환하게 되면 고려인들의 구심점을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려는 국민적인 소망과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단체에서 동의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은 1937년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해 온 고려인들의 후예들이다. 고려인 선조들은 빼앗긴 조국 광복을 위하여 망명하여 황무지에서 생계를 개척하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들이다. 연해주는 독립운동의 심장이었다. 침략자들로부터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평범한 서민들도 무기를 들고 독립투쟁에 나섰다. 홍범도 장군 외에도 최재형, 이상설, 안중근 등 독립운동의 뛰어난 지도자들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름 없는 독립군의 후예들이 구 소비에트 지역에 살고있는 고려 사람들이다. 요즘 중앙아시아나 연해주에 거주하는 제3 세대들은 같은 민족으로 동일한 역사를 가진 민족공동체라는 사실에 무관심하고, 역사에 관심이 적은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은 고려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려인 선조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헌신을 다시 인식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강력한 역사 의식과 동질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비록 외국에 거주하여도 고국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함께 연계되어 있다는 연대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고국으로 이주하여 생계를 개척하고 있는 대한고려인 협회 회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동포애를 느끼고 있다. 고려인들은 대부분 매우 취약한 환경에서 일일 노동자로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지만 같은 동포라고 하여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이웃 주민들과 자원 봉사 단체의 헌신적인 열정을 보면서 새롭게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번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은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사회에 새롭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고, 중앙아시아와 연해주에 거주하는 모든 고려인들에게 민족적 유대감과 역사 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 동안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에 헌신해 오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각별히 감사드린다. 🙏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마주할 홍범도 기념공원 조성을 제안한다

한동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1920년 무장항일 독립군의 국내 진공 작전이 무려 1,651회나 펼쳐졌다. 그해 6월 우리 독립군은 일본군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로 전면전을 벌여 대승을 거뒀다. 바로 홍범도 장군이 이끈 봉오동 전투다. 임시정부는 이를 독립전쟁 1차 대승리라고 불렀다”
인용한 이 문장은 올해 3·1절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 계획을 밝히면서 봉오동 전투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평가한 발언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 가운데 이토록 치열했던 독립군의 국내 진공 작전, 소규모 게릴라전이 아니라 정규 부대가 전면적으로 맞붙어 제국주의 일본에게 치명타를 안겼던 봉오동 전투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격언은 너무나도 명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이라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종종 잊고 지낸다.
대일관계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7월4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전해지면서 한일관계는 급냉각기를 거치고 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 국민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적대적으로 여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를 가장 먼저 내렸다. 한국의 방역 작업이 가장 성공적이었음에 속속 입증되고 일일 확진자 발생 건수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 최근에도 일본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를 한 달 더 연기했다. 최근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들과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일본이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 그리고 한때 우리를 강제 점령하고 식민통치를 자행하며 한국 민초들에게 형극의 삶을 강요했던 나라임을 새삼 깨닫는다. 물론 우리가 일제시대를 잊어야 할까? 너무 희미하게만 기억하거나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역사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대한 역사 인물의 자취를 평상시 친숙하게 마주하고 그 인물이 지닌 스토리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우리 역사에는 국난의 시기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명장들이 많았지만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 업적과 행적을 자세히 알고 있는 가장 친숙한 인물은 단연 이순신 장군이다. 장군의 살아생전 일대기가 여러 문학작품을 통해 기록되어 충무공 이순신의 스토리를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출귀몰한 거북선이라든가 세계 해전사를 장식한 한산도, 명량, 노량 등 3대 대첩 등이 국민들에게 다 잘 알려져 있다. 또 모함을 받아 삼도수군통제사의 직을 잃고 백의종군하여 싸운 이야기는 어떠한가. 이 스토리 하나만으로도 장군이 겪은 고초와 강직한 성품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역사 인물과 친숙해지고 그 사람이 지닌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때 비로소 역사는 박제된 활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마치 살아있는 인물의 아우라를 느끼듯이 그 인물과 그가 살았던 시대가 풍부하게 재현되는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위대한

선열들의 기념관을 짓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역사를 잊지 않고 오늘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마주하고자 함이다.

역사의 이런 속성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전쟁과 독립운동 역사에서 가장 큰 발자취인 여산 홍범도 장군을 제대로 마주하고 업적을 기리며 장군의 행적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대한민국이 아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홍범도 장군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기념관 하나, 공원부지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홍범도 장군이 이끈 봉오동 전투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과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가 연합하여 10일 동안 일본 정예군을 대파한 청산리대첩은 일제 시기 가장 빛나는 투쟁의 역사이다. 무려 3천여 명의 연합부대(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1,400명의 독립군과 김좌진 장군의 1,600명의 북로군정서)는 일본 정규군과 맞서 적을 총형으로 유인하고 섬멸하며 조선 민중의 독립 의지와 결코 꺾이지 않는 항전의 자세를 세계 만방에 고했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은 그 규모에서부터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나 동유럽의 파르티잔 등 게릴라전과 비교되지 않는 역사적 전투들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 속에서 기계적으로 ‘홍범도-봉오동 전투’라는 등식 하나만을 외을 뿐 그 전쟁의 치열했던 실상, 전쟁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유인과 매복전술,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독립군들의 영웅적인 기개와 활약상, 수많은 민초들의 헌신을 어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 시대와 인물을 제대로 마주하고 스토리를 듣고 친숙하게 접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봉오동전투와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읽고 관람하고 참배하고 추모하며 그 시절의 생생한 유물과 격전의 현장을 재현한 기념관과 추모 공원부터 조성해야 한다.

일제 시대에 국내에서 독립과 계몽운동을 벌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기념관은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하며 29,974 제곱미터의 도산공원과 함께 선생의 일생을 기리는 장소로 역할을 하고 있다. 용산구 효창동에는 백범 김구 기념관과 효창공원이 존재한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은 서초구 매현로 양재시민의 숲에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념관과 추모 또는 기념공원은 역사 인물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역사 교육장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선열들에 대한 후세대인들의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자랑스러운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마침 장군의 유해도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봉환되는 올해에는 기필코 홍범도 장군 기념관과 추모공원 건립의 첫 삽을 뜨는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홍범도 장군에게 마음의 빛을 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

‘2020년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올해는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

일자: 2020년 6월 7일(일) 10:00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내용: 독립군의 빛나는 항일전쟁의 업적을 기리고,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하고, 2020년을 일제 강점에 대항한 승리의 역사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패배와 수난의 역사에서 승리와 극복의 역사로 대국민 자존감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봉오동전투전승 100주년 음악회

일자: 2020년 6월 7일(일) KBS 홀에서 공연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해봉환행사에 맞추어 진행 예정입니다.

홍범도장군 소설 출간

기획 개요: 여천 홍범도 장군의 극적인 삶과 영웅적인 항일 투쟁을 대중적이고 흥미진진한 장편소설로 창작하여 문학 독자, 청년층, 청소년, 친일과 반일의 역사대립에 관심을 지닌 광범위한 대중에게 보급함.

도서 분량: 단행본 1권(약 360페이지 내외)

발간 시기: 2020년 9월 (2,000권 인쇄)

출판기념회: 홍범도장군 서거일인 2020년 10월 중

현서: 2020년 10월 25일 '홍범도장군 순국 77주기 추모식'에서 홍범도 장군 묘역에 현서

- 현재 송은일(1964년생, 반야, 불꽃섬 등 30여편) 소설가가 집필중으로 작품이 마무리단계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제작 및 방송: KBS

방송 시기: 2020년 10월 예정

방송 시간: 총 3편, 편당 60분

다큐멘터리 내용

신선한 다큐기법과 대규모 재연, 최신 특수영상기법을 이용하여 다큐멘터리를 넘어서는 다큐멘터리로 독립운동사의 영웅을 대중적으로 복원

홍범도장군 콘텐츠 경연대회

일자: 2020년 5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6-8월중에 진행예정입니다.

경연 방법: 장군의 닉네임 및 시그니처 디자인 공모

참석 대상: 전국 초.중.고.대학생

청년과 함께 하는 고려인 동포 교류 한마당

일자: 2020년 10월 21일~25일(3박5일)

장소: 알마티 및 크즐로르다 (카자흐스탄)

행사 내용

- 홍범도장군 순국 77주기 추모식(크즐로르다)

홍범도장군묘역 참배 및 추모식, 고려인 협회 방문

- 고려인 동포 교류(알마티)

·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방문 및

연극 관람, 고려인촌 방문

· 카자흐스탄 독립 운동가 후손 협회 방문,

제반 동포단체 회의

- 기타(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 본 행사 후 크즐로르다 시내 홍범도장군 공원

조성 건립 협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립크즐로르다 대학교

상호교류 MOU 서명식 참여

제1회 홍범도장군배 전국 사격대회

일자: 2020년 11월

대상: 생활체육(중·고·대학부 각 40명씩 총 120명)

내용: 2020년 사격대회 시즌 완료 후 주요대회 학생 수상자들을 초청하여 왕중왕전 개최를 통하여, 사격에 출증했던 홍범도장군의 독립전쟁의 역사 및 의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 향상

역사기행서 출간사업

「항일 최대전승, “봉오동전투의 흔적을 따라...”

기획 개요

봉오동전투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평가를 위해 소설 출간 사업계획과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계획을 보다 심화·확장 시키는 차원에서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역사기행서 출간을 계획함.

(역사 기행서 사업은 광복회에서 진행합니다.)

독립군 체험 스탬프 투어 (청산리 전승 기념식 부대 행사)

청산리 대첩은 홍범도 장군이 김좌진 장군과 함께 이룩한 또 하나의 독립전쟁 승리의 찬란한 역사입니다. 청산리 전투 기념행사 중 일부를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합니다.

독립군체험 프로그램/스탬프 투어 행사 내용

일자: 2020년 10월 24일~25일

장소: 한강둔치공원

인원: 약 100가족(250여명)

신임 이사진 인터뷰



김우진 이사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통해, 다시 뿔 수 있게 돕는 전직지원 전문기업 케이잡스 대표 김우진입니다. 올해 2020년은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립전쟁을 이끈 선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은 온 세상 권세를 쥐락펴락하던 고관대작도 아니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던 당대의 세도ಗ도 아니고, 오뉴월 소낙비에 뒹집 진 팔자걸음으로 체면을 차리던 양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자거리에서 흥정하던 상인과 아낙네, 생계를 위해 나무 한 짐이라도 더 팔려던 나무꾼, 말라붙은 누런코를 흠치며 자기기 보다 더 큰 총을 든 아이, 심지어 웃음을 팔던 기생에 이르기까지 지극히도 평범한 우리 민초였습니다. 당신들의 동전 한 앞, 쌀 한줌, 나무한단, 그보다 더 귀한 당신의 생명이 전장의 탄환이 되고 군화가 되고 군복이 되어 평민 출신 홍범도 장군의 무장독립전쟁 승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평범한 우리가 이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겠지만,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우리 선열들의 희생을 감사하며 독립의 정신으로, 친일잔재 청산을 기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용기 내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활동을 시작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기념사업회 활동에 기여하며 그 기운을 받아, 제 주변의 사람들도 다시금 가슴 뿔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우원식 이사장님, 홍순계 상임이사님 등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소속회원 모두와 힘을 합쳐 숭고한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100년전 그날이 지금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것입니다.



김태원 이사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임이사 김태원입니다. 저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 출신으로 일찍부터 독립투쟁의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저의 응당한 의무로 여기며 위대한 영웅들이 격동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함을 늘 개탄해왔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항일무력투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과로 손꼽히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에 고매한 인품으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홍순계 상임이사님께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추진사업을 소개하셨을 때 망설임 없이 참여를 결정하였고, 저의 30여년 금융업계의 경력으로 맺어진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여 큰 뜻에 동참하는 회원 확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00년전 나라 잃은 설움을 이겨내고자 십시일반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했던 대한제국민의 애국심 못지않은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회원 분들의 정성 어린 손길에 이 지면을 빌어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무자비한 일제의 총칼에 맞서 목숨으로 무력항쟁하여 대한독립을 이끈 주역인 홍범도 장군 및 무명 영웅들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원식 이사장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 올리며 향후 사업회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태호 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감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기인 안태호입니다. 먼저 본 기념사업회에 참여 기회를 주신해 주신 우원식 이사장님과 카카오톡을 통해 환영해 주신 이사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며칠 전 윤봉길 의사님의 중국 홍커우 공원 의거일을(4월29일) 알려주는 너무 단출한 보도와 (물론 코로나 19의 위용이 너무 크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만) “민족”, “독립운동” 등의 단어가 자꾸만 소홀해 지고 있는 요즘의 제반 여건에 저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 중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알림이 점차 적어져 가고, 나아가서는 잊혀져 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내친김에 여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도 방문하고, 관련 유튜브도 뒤적이며, 장군님의 기록을 살펴보는 기회도 가지면서, 본 기념사업회의 일원이 되어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환영해 주신 임원님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 이사

안녕하세요 정보현입니다. 1957년생 닭띠생이며, 태어난 곳은 전남 강진입니다. 1남1녀를 두고 있고 아들은 직업군인 이며 딸 아이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서울로 이사와 지금은 노원에서 조그만 부동산을 33년째 운영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로 가입하게 된 동기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고문 등을 이겨내며 쓰라린 고생을 하신 애국지사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야인시대 등 드라마와 영화 속에 나오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많이 아파하고 동경 해왔습니다. 다. 일제와 맞서 싸운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억압과 고문을 당하는 모습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전생애 ‘내가 독립군이었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원식 의원님께서 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다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를 보고 깊은 감명도 받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신 애국지사 홍범도 장군께 감사의 마음과 홍범도장군의 위업에 가까이 하고자 이사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제가 이곳에 일원으로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임원 년간 회비 임금현황 (2020년 1월~4월, 가나다 순)

김용환, 김우진, 김진형, 김 찬, 박대봉, 부윤경, 양정숙, 우원식, 유정배, 이경철, 임태성, 정광균, 정내하, 홍성덕, 홍성중, 홍이표, 황원섭

CMS회원 회비 임금현황 (2020년 5월 15일 현재 143명)

JIN CHUNXING, 강도연, 강태영, 고흥오, 권재석, 김거성, 김관표, 김대영, 김대환, 김도식, 김미선, 김미자, 김사엽, 김상우, 김선자, 김성미, 김성순, 김성애, 김성현, 김신애, 김양미, 김영진, 김옥찬, 김용경, 김우진, 김재현, 김재형, 김정식, 김준수, 김준영, 김창환, 김태원, 김학필, 나명현, 노용기, 맹진규, 문재남, 민기식, 민병훈, 박국진, 박도산, 박선원, 박점조, 박조수, 박준영, 박태근, 배규식, 배영실, 백장현, 서경민, 서 민, 서양원, 석진경, 석혜경, 설정선, 손여록, 손현상, 송정화, 신완철, 신재면, 심상걸, 안상환, 안영수, 안태일, 양미숙, 엄기인, 엄범용, 여상연, 여은석, 오연근, 우문식, 유봉석, 윤여각, 이대호, 이병국, 이병룡, 이성미, 이수연, 이순자, 이승룡, 이영란, 이영희, 이우엽, 이원정, 이원형, 이유창, 이은영, 이은우, 이정원, 이주열, 이준호, 이지련, 이지선, 이 진, 이태준, 이행란, 이현주, 임현문, 장송희, 전광출, 전성배, 전성선, 전흥기, 정동준, 정두영, 정성관, 정윤미, 정은숙, 정인택, 정준수, 정지국, 조봉현, 조영욱, 조영제, 조현재, 지애숙, 지영순, 지예은, 지현주, 천상영, 최재호, 최향수, 한영우, 허양순, 홍영만, 홍정희, 홍희령, 황덕순, 황종섭

임원명단

이사장	우원식(국회의원)	
명예이사장	이종찬(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부이사장	황원섭(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감사	박형상(변호사 / 전 서울중구청장)	
상임이사	홍순계(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사무총장	한동건((주)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이사	김양진(BC카드 상임감사)	김진형((사)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 찬(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경호(대구광역시 의료관광산업 자문대사)
	김수송((주)이음컴넷서비스 대표)	김용환(전 한남대 부총장)
	김준목(사)혁신경제 이사장	김현권(전 국회의원)
	김현정(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형상(조이 세무회계 대표 / 국세청 세무사자격 심사위원)
	남궁정(노원구 자전거연맹 상임고문)	남인순(국회의원)
	노정래((주)건화 감리CM본부 사장)	류병균(평화전략연구소장)
	문현균(한국노총부위원장 / 중앙노동위원회 노동계 위원)	박드미트리(카자흐스탄 P&TEC 농업조경법인 대표)
	박원주(국회의원)	부윤경(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 전 삼성물산 화학소재사업부장)
	석순용(특허법인 신세기 대표)	손광춘(건축업)
	손양호(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박물관 후원회장)	오세중(대한변리사회 회장)
	우난혜(사진작가)	위성곤(국회의원)
	유 용(서울시의원)	유정배(대한석탄공사 사장)
	이경철(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이명식(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이미자(전 종로구의회 의원)	이승종(삼성전자 연구원 / 네무스텍 대표)
	이재호(한국리싸이클링 대표)	임태성((재)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
	정광균((주)미르나인(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제작) 대표이사)	정내하((주)미네랄하우스 대표)
	정수진(하나카드 자문위원 / 전 하나카드 대표이사)	제종길((사)도시·인·숲 이사장 / 17대 국회의원)
	조태수((주)다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 윤(E3플랜비 대표이사 /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최익훈(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최재웅(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한승관(대한변리사회 회원이사)	한왕기(제40대평창군수)
	홍성덕(전 주독일한국대사관 공사)	홍성중(남양홍씨남양군파대종중회 회장 / 토금산업 회장)
	홍의락(국회의원)	홍이표(하이리빙 대표)
	홍재구(당정사적보존회 회장)	홍종표(강동수산 대표이사)
신임이사	김우진(K잡스 대표이사)	김태원 (NH증권 부사장)
	박대봉(한국비즈니스컨설팅사주식회사)	안태호(한국전기감리협의회 부회장)
	정보현(노원 소상공인협의회 감사)	

후원안내 : 신한은행 100-027-188760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홈페이지 : www.hongbumdo.org
회원가입 : 김현식 사무국장(010-2782-8151)



회원가입